

# 부양인식, 형제자매 지원과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비용 지각\*

- 도시와 농촌 비교를 중심으로 -

## Korean Caregiver's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the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 focused on Rural and Urban Difference -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한경혜  
한경대  
강사 이정화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an, Gyoung-Hae  
Hankyou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Lee, Jeong-Hw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In spite of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in recent years, quite many families in Korea still have taken the extended family form where daughter-in-law provides care for the elderly parents. Even though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Korea is reciprocal in many regards, most of the studies looked at the burden or costs of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ositive side of the coresidenc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in the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the costs but also benefits of the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e also explore whether there is a rural-urban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of coresidence and related factors.

\* 본 논문은 2001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For the purpose, data were gathered from 876 daughters-in-law of three generational family both in rural and urban are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arit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parents, age, job status and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of caregiver, sibling support, and coresidence duration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erceived benefits. Marital status of elderly parents, income, job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of caregiver, residence region affected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Rural-urban differences are found in many aspects of coresidence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Rural caregivers receive higher level of the sibling support, have more traditional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and perceived less costs and more benefits than urban caregivers. There also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Level of sibling support and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have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at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urban caregivers are affected by job status of caregivers while those of rural caregivers are affected by educational level of caregivers and marital status of elderly.

The results confirm that Korean caregivers experien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coresidence and shows that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rural and urban Korea.

**주제어(Key Words):** 혜택(benefit), 비용(cost), 노부모 동거(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형제자매 지원(sibling support), 부양의식(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 I. 서론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보편적으로 성인자녀들이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보아왔다. 즉 동거와 부양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노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를 하는 것은 곧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주로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써 지각하게되는 부양부담의 정도나 관련변수에 관심을 두어 이들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민무숙, 1995; 이신숙, 서병숙, 1993, 1994; 한은주, 1993; Zarit, Reever & Peterson, 1980, etc). 그러나 노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그 주원인이 노부모의 의존성 때문만은 아니어서, 기혼자녀세대가 부양부담 외에 노부모와 동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왔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성인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도움이나 혜택에 관하여는 도시가족을

중심으로 일부 접근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노부모가 서비스의 일방적 요구자가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는 등 오히려 서비스를 베푸는 입장임을 보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가 노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모부양의 관계가 아니라 세대간 지원제공 및 수혜가 교류되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서병숙, 장선주, 1990; 조병은, 신화용, 1992; 이숙현, 손승영, 1992; 윤순덕, 한경혜, 1994). 그러나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없어서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세대가 지각하는 혜택과 비용지각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는지, 비용 혜택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 요인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날 것인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우선, 도시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게 하였으며, 이때 부모와의 동거가 대안으로 취해지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양육제공, 지원자라는 의미에서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지역의 노부모 동거는 자녀가 자발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가능하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가율의 증가로 농촌의 3세대 가족에서도 며느리의 '일'로 인한 노부모의 가사노동분담이 일어나더라도 농업이 도시취업에 비해 일터와 가정의 공간적인 분리가 적다는 특성상 자녀를 맡기는 문제가 도시에 비해 덜 심각할 수 있고 따라서 자녀양육상의 혜택 지각이 도시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촌의 경우 사회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도시에 비하여 다소 더디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보급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서구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될 기회에서 도시와 농촌은 차이가 나고 도시에 비해 새로운 변화를 보다 빨리 습득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변화에 있어 도농간 시간지체(time lag)가 존재한다. 또한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이는 노부모 부양의식에 있어 농촌이 도시보다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연결된다(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1999). 부양의식은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서 부양의식이 전통적이며 노부모 부양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부담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박경란, 1988; 한은주, 1993; Cicirelli, 1983 etc). 따라서 농촌이 도시보다 전통적 부양의식을 보인다는 것은 농촌의 부양자가 부양혜택과 비용지각에 도시의 부양자보다 더 긍정적일 것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청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는 도시로 이주하고 노부모는 농촌에 남아 농토와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 이때 농촌에 남아있게 된 자녀-주로 아들-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비자발적인 동거의 3세대 가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농촌에 남아 노부모를 모시게 된 성인자녀는 자발적 동거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도시의 성인자녀보다 도시

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제자매 지원정도에 있어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이 노부모 동거성인 자녀의 혜택과 비용지각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형제자매의 지원이 부양으로 인한 부양자의 부담, 비용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이정화, 1999; 이정화, 한경혜, 1999)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자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부양자가 지각할수록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성인자녀의 혜택-비용지각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주 부양자인 며느리의 취업,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에서의 도시와 농촌 차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3세대 가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의 혜택/비용

본 연구의 대상인 노부모와 기혼자녀세대가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기초한 제도'(이숙현·손승영, 1992)이므로 서구의 부모-성인자녀 동거연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의 경우,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노부모가 절대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 한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노부모의 만성질환 외에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주로 성인자녀가 실업, 별거, 이혼이나 개인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어서 우리사회의 부모와 성인자녀, 기혼자녀 동거와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경우, 노부모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주로 딸과의 동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과의 동거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그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3세대 가족을 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나 도시화에 따른 지역적 이동증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부모와의 동거가 어렵게 되면서, 가구구성상의 핵가족화와 함께 정서적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왔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기능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왔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현대사회 특히 도시에서 확대가족이 과연 비기능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자녀양육상의 필요에서 부모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Morgan, Hiroshima(1983)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확대가족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가족의 '적응전략'에서 찾고 있다. 즉,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양육에서의 도움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결혼초기의 낮은 수입, 그리고 여성의 취업과 가사일과의 양립불가능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윤순덕, 한경혜, 1994).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실업이나 이혼, 미혼모가 됨 등의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이 증가하였고,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취업율을 보인다(Glick & Lin, 1986).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취업한 기혼여성에게 부모가 가사나 손자녀 양육을 도와주어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공세권 등, 1990: 조병은 신화용, 1992; 윤순덕·한경혜, 1994).

현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부모세대가 건강한 몸으로 자녀세대, 손자녀 세대와 긴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증가하게 된 점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세대의 시간적 양육적 요구의 증가와 부모세대의 신체적 시간적 능력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동기 이외에도 부모와 성인자녀간 동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동거에 관한 연구들은 동거로 인한 혜택보다는 그로 인해 치르게 되는 대

가, 부담, 비용의 측면에서 동거 및 부양의 효과를 논의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부양자의 부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온 서구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한 원인이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를 자녀에게 주로 의지해 왔다는 점도 또한 연관된다고 하겠다.

노인은 곧 부담이라는 인식위예(한경혜, 1996) '노부모와의 동거'를 '자녀의 부양'과 등식화하여 왔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부양수혜자라고 볼 수는 없다. Atchley와 Miller(1980)등이 지적하였듯이 노인의 인지손상이나 기능손상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동거부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모자녀간 교환되는 모든 유형의 지원을 고려해보면 부모자녀 세대 중 어느 쪽도 일방적인 제공자이거나 수혜자인 관계는 없다. 특히, 직계가족의 전통 하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노부모 부양이 존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모가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세대에게 의존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거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는 서구의 경우보다 훨씬 더 상호 호혜적인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성인자녀들이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어머니 부양에 대해 딸이 지각하는 이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딸들은 어머니 부양에 대해서 비용은 낮게, 이익은 상당히 높게 지각하였다(Fisher, 1983; Shin, 1989). 또 도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비용과 혜택을 연구한 윤순덕·한경혜(1994) 역시 기혼여성들은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비용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혜택, 비용과 동거만족도와 관계를 살펴본 이숙현·손승영(1992)의 연구에서도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호혜적인 관계가 상당한 정도이고 이때 동거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단순히 일방적인 부양의 측면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논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에 대한 시각을 재고할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

와 동거하면 어떤 혜택, 비용을 지각하는지 그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혜택, 비용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코자 한다. 형제자매의 지원, 취업, 부양의식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대상 연구만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들 요인이 혜택, 비용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도·농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거주지역이 농촌인지 도시인지 하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거동거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동거부양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동거로 인한 혜택, 비용지각의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 2. 부양의식, 형제자매의 지원과 노부모 동거의 혜택/비용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하여 어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점은 그 사회의 세대관계에 대한 규범, 기대 및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상황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 중 동거자녀의 부양의식과 형제자매가 동거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와 노부모세대간의 관계나 동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실증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그 동안 부양의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부양의식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부양의식은 부양자의 성, 피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그리고 노부모의 건강상태나 소득,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송애, 1991; 배희분, 옥선화, 1993; 송현애, 1986, 이가옥 등, 1990 등).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 도시지역보다 노부모 부양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정도가 높아질수록 동거부양을 원하지 않는 등 의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식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의 성인자녀에게 동거부양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가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가질수록 부모동거에 따른 비용을 덜 지각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한편, 노부모와 동거 시 형제자매가 어떤 종류 및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으며 주로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부담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부양자 외에도 가족은 체계로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족의 지원은 주부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증연구들이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지원제공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게 되는데 기대한 만큼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Strawbridge & Wallhagan, 1991). 그리고 Brody와 그 동료들(1989) 역시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 부양자는 부양으로 인한 부담, 비용이 고조된다고 하였다. 송현애(1993)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들이 별거하는 며느리들보다 형제자매들로부터의 지원이 적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는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형제자매들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농촌의 동거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이정화(1999) 연구에서도 형제자매 지원이 성인자녀의 부양부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지원이 부양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양혜택 지각에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혜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지원을 봄에 있어서 지원의 양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간 부양에 대한 역할 공평성이나 협조성, 도움의 충분성 등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인 접근만을 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한 형제자매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양의식과 형제자매 지원외에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 동거혜택/비용지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배경변수로 고려하였다. 동거하는 며느리/ 딸이 취업한 상태인지 아닌지 등의 특성은 또한 가사노동 협조나 손자녀 돌보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모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같은 노부모 측의 의존성 역시 자녀세대의 동거부양으로 인한 혜택과 비용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거자녀의 취업을 비롯한 소득, 연령, 학력과, 동거노부모의 건강,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그리고 부양의식, 형제자매의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이 동거혜택/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도시지역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6개 지역에서, 농촌지역은 9개 도의 각 1지역에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부모중 시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학교 당 배포된 설문지는 30부 내외이다. 따라서 자료는 30개교에 900부가 배포되었고 도시는 361부, 농촌은 515부, 총 876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크게 동거로 인한 비용, 동

거로 인한 혜택, 형제자매의 지원, 부양의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거로 인한 비용

동거로 인한 비용의 척도는 부양부담에 관한 Novak & Guest(1989), Stull, Koslosky & Kercher(1994), 송현애(1993), 성미애(1991)의 연구를 기초로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 심리적, 관계적, 갈등적 측면에서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2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2개의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은 두 문항을 제외하고 20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축분해법에 의한 공통요인모델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요인 I 이후에 추가로 설명되는 변량이 많지 않아 1개로 택하였고 1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85.6%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5로 나타났다.

##### 2) 동거로 인한 혜택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을 측정하는 문항은 조병은·신화용(1992), 윤순덕·한경혜(1994)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경제적인 도움, 손자녀돌보기나 집안일에서의 도움, 정서적 도움,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도움의 4문항이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1로 나타났다.

##### 3) 부양의식

부양의식의 측정도구로 전길량(1993)의 부양의식과 성미애(1991)의 부양규범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내용은 자녀로서의 부양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식이 노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노후에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이 부모님을 굳이 모시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58로 나타났다. 부양의식의 신뢰계수가 낮은 것은 이 척도의 문항수가 적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형제자매의 지원

형제자매의 지원 척도 문항은 Lerner와 Somers 등(1991)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형제자매 지원의 양적인 면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지원에 대한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자의 평가와 같은 질적인 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형제자매의 지원 문항을 형제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만족도, 역할공평성, 협조성, 도움의 충분성을 묻는 5점 리커트 척도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형제자매의 지원만족도는 형제들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정도에 대한 만족정도로 구성하였다. 역할공평성은 시부모 부양에 형제자매들이 서로 공평하게 역할을 분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한 문항, 협조성은 시부모 부양에 형제자매들이 협조적이라고 지각하는지에 관한 한 문항, 도움의 충분성은 형제자매들이 충분한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형제자매'는 조사대상자인 며느리의 '시가 형제자매'를 지칭한다.

5) 조사대상자 가족의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자 가족의 특성 변수는 3세대 가족 성인자녀인 응답자의 연령, 학력, 가구의 월소득, 취업여부, 동거기간, 며느리순위, 시부모의 배우자 유무, 시부모의 건강상태, 시부모의 경제적 형편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며느리의 부양의식, 형제자매의 지원, 부양부담, 부양혜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이 밖에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pc가 이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

먼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며느리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38세이고,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지역 며느리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가족의 월 소득 수준이 농촌가족보다 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 변수		도시	농촌
		N(%)	N(%)
연령	34세이하	53(14.7)	103(20.2)
	35~39세	133(36.8)	242(47.5)
	40~44세	122(33.8)	121(23.7)
	45세 이상	53(14.7)	44(8.6)
교육수준	국졸이하	13(3.6)	72(14.1)
	중졸	47(13.1)	152(29.8)
	고졸	172(47.9)	194(38.0)
	전문대졸이상	127(35.4)	92(18.0)
가구소득 (단위: 만원)	100 미만	31(8.7)	120(24.0)
	100~200 미만	125(34.9)	218(43.7)
	200~300 미만	102(28.5)	96(19.6)
	300 이상	100(27.9)	63(12.6)
직업	전업주부	173(49.7)	204(40.6)
	취업주부	175(50.3)	288(59.3)
며느리	만(외)며느리	224(65.3)	315(62.7)
	지차며느리	119(34.7)	187(37.3)
동거시부모	시부	26(7.3)	38(7.4)
	시모	204(57.5)	278(54.0)
	시부모	125(35.2)	199(38.6)
계		361(100.0)	515(100.0)
연속 변수	도시	농촌	t
	평균(SD)	평균(SD)	
동거기간(년)	10.6(6.32)	11.4(6.34)	-1.74
시부모 경제수준(1-5점)	3.2(.92)	3.1(.83)	.91
시부모의 건강상태(1-5점)	2.9(1.17)	2.8(1.10)	2.06*

\* p<.05 \*\*p<.01 \*\*\*p<.001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도시의 경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농촌지역의 경우 취업주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 17%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3세대 가족 며느리의 취업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평균 취업율이 97년 현재 각각 47.8%, 51.2%인 것에 비교하여(통계청, 2001) 이 자료에서의 50.3%, 59.3%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친족과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높은 취업율을 보인다는 Glick과 Lin(1986)의 결과와 유사하다. 며느리 순위를 보면 만(외)며느리의 비율이 도시와 농촌 각각 65.3, 62.7%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만며느리들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약 36%는 지차며느리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지차며느리의 동거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세대 동거가족에서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가구가 도시와 농촌 모두 가장 많았다. 동거기간은 평균 약 11년이고, 시부모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좋은 편으로, 시부모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좋지 않은 편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도시지역 응답자가 시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2.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

응답자의 부양의식은 어떠하며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2), 농촌

<표 2> 농촌과 도시의 부양의식과 형제자매 지원

연속변수	도시	농촌	t
	평균(SD)	평균(SD)	
부양의식	2.92( .84)	3.15( .81)	-3.49**
형제자매 지원	2.87( .90)	3.02( .86)	-2.45*

\* p<.05 \*\*p<.01 \*\*\*p<.001

지역 응답자들이 도시지역 응답자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부양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에 거주하면서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성인자녀는 도시지역의 자녀들보다 노부모 부양이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농촌가족이 도시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승되어온 가정생활 문화를 더 향유하고 있으며, 보다 전통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또 도시가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박혜인, 2001)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제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역할공평성, 도움의 충분성, 협조성으로 평가한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응답자가 도시지역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시응답자들에 비해 농촌의 응답자들에게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Cicirelli(1992)가 이야기하듯이 형제자매 지원에 대한 판단은 형제들의 객관적인 부양참여정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양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어느정도 지원을 기대하는가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즉, 성역할 규범, 형제자매와의 거주거리, 형제들에게 직업과 같은 경쟁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부양분담 기대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지원정도 보다는 이러한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한 부양자의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해서 농촌의 응답자가 도시의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는 것은 농촌지역 응답자들이 형제자매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지원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동거로 인한 혜택-비용

농촌 응답자와 도시응답자들이 지각하는 동거로



인한 혜택과 비용 정도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우선,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어떠한 부분을 가장 혜택적 혹은 비용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문항에서 유의차를 보일 만큼 도시와 농촌 응답자간 혜택과 비용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달랐다. 농촌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비용은 낮게, 혜택은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도시 응답자는 비용은 높고, 혜택은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동거로 인한 비용과 혜택 25문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 응답자들이 농촌지역 응답자들보다 시

부모와의 동거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비용  $t=3.77$ ,  $P<.001$ : 혜택  $t=-4.29$ ,  $p<.001$ )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응답자들이 동거로 인하여 비용이라고 가장 많이 지각하는 항목은 '내가족과 시부모와의 책임감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부모와의 동거가 '정신적으로 불편한 일' 이거나 '내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항목들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동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가장 많이 지각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핵가족적 책임감, 지향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lt;표 3&gt; 동거로 인한 비용 및 혜택의 전반적 경향

Mean (SD) 점수범위(1-5)

문항	도시	농촌	t
시부모와의 동거로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함	3.25(1.17)	2.77(1.23)	5.70***
시부모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비용이 들	3.39(1.02)	3.16(1.10)	3.77***
시부모와의 동거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일임	3.44(1.14)	3.16(1.23)	3.38**
시부모와의 동거로 가사부담이 큼	3.12(1.17)	2.86(1.20)	3.21**
시부모와의 동거는 가정형편상 부담이 됨	2.81(1.11)	2.59(1.15)	2.75**
어디 멀리(휴가나 방문) 다녀올 수 없음	3.05(1.22)	2.81(1.30)	2.73**
시부모님은 내 생활에 일일이 알려하심	2.96(1.19)	2.74(1.29)	2.55*
시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 때때로 짜증 남	2.48(.94)	2.32(.97)	2.42*
시부모 때문에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못함	3.01(1.06)	2.82(1.19)	2.39*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사회활동을 못함	3.00(1.21)	2.80(1.28)	2.30*
시부모와의 관계로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함	2.85(1.18)	2.67(1.19)	2.20*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이 충돌됨	3.11(1.05)	2.97(1.15)	1.82
아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있음	2.78(1.13)	2.64(1.18)	1.75
남편이나 아이들과 오붓하게 즐길 수 없음	3.37(1.13)	3.23(1.25)	1.73
내 몸이 피곤해도 어려워져서 마음대로 못 씬	3.22(1.15)	3.08(1.27)	1.70
내가족과 시부모에 대한 책임감에서 스트레스 느낌	3.45(1.02)	3.34(1.15)	1.46
손님이 많아 피곤할 때가 많음	3.34(1.13)	3.23(1.21)	1.34
시부모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 화가 날 때가 많음	3.08(1.02)	3.00(1.11)	1.11
가족과의 외출에 눈치가 보임	3.36(1.18)	3.27(1.27)	1.02
시가형제자매들의 기대나 간섭이 지나침	2.25(1.08)	2.18(1.01)	.97
비용	3.08(.69)	2.88(.80)	3.77***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2.18(1.19)	2.63(1.17)	-5.36***
시부모님은 집안일/아이키우는데 도움을 주심	3.16(1.32)	3.50(1.22)	-3.90***
시부모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힘이 되어줌	3.10(1.18)	3.36(1.15)	-3.26**
시부모님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어주심	2.95(1.12)	3.05(1.16)	-1.31
혜택	2.86(.96)	3.14(.93)	-4.29***

\*  $p<.05$  \*\* $p<.01$  \*\*\* $p<.001$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동거로 인한 혜택-비용 문항을 배열함.

있다. 그리고 동거의 비용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항목은 '시가형제자매들의 기대나 간섭이 지나치다'는 항목이었다. 시가 형제자매들과 아주 가까이 생활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 기대나 간섭으로 인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손님'이 되어 응답자를 손님접대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비용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동거로 인한 비용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응답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주거공간의 협소', '생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 '정신적으로 불편한 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항목을 비용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도시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비해 도시는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이 비좁고 아파트 주거가 많아 주거공간 내에서 개인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는 농촌노인에 비하여 도시 노인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고, 어떤 활동에도 비용이 드는 현실,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긴밀한 농촌과는 달리 이주가 잦은 도시생활로 인해, 혹은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경우 노부모의 사회적인 관계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도시지역의 응답자가 농촌지역의 응답자에 비해 더 비용이라고 지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가장 혜택을 느끼는 부분은 역시 '시부모님이 집안 일이나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다', 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 힘이 되어주신다'는 항목이었는데 농촌응답자가 도시응답자보다 더 이 두 항목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농촌응답자 모두 '시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동거의 혜택이라고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와 농촌 응답자들은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도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은 혜택을 받는 측면으로 인정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은 별로 받고 있지 않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도시 응답자의 경우 농촌응답자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3세대 가족의 성인자

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의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응답자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으로 도시, 농촌 응답자 모두 동거부모가 자녀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과거에 중요시했던 지식의 유용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도시나 농촌응답자들은 노부모의 자녀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 이상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순덕·한경혜(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취업여성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중간을 밀도는 평균치를 보이고 있어 연구자들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그 혜택지각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 4. 동거로 인한 비용과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응답자의 동거로 인한 혜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떠한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 가족의 특성과 부양의식, 형제자매의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변수들이 도시지역 응답자 비용의 24%를, 농촌지역 응답자 비용의 31%를 각각 설명하고 있어 농촌 응답자의 동거로 인한 비용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응답자와 농촌지역 응답자 모두 시부모 두 분과 살 때,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동거로 인한 비용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셔야 할 어른이 두 분인 때보다 한 분으로 그 수가 적을 때, 부양에 대해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형제자매가 지원을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한다고 만족할 때, 동거로 인한 비용을 낮게 지각하였다.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비용지각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응답자들은 취업여부

에 영향을 받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더 비용적으로 지각한 반면,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학력에 영향을 받아 학력이 높을수록 더 비용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학력이 도시동거자녀의 혜택과 비용지각에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 도시 동거자들에게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은 것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농촌응답자의 학력은 동거로 인한 비용지각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사일과 일의 구분이 모호하고 가정과 일터의 공간적 분리가 불분명한 농촌 거주자에 비하여, 일터와 가정의 영역간 공간적, 시간적 분리가 명확한 도시지역 응답자에게 있어 취업유무가 비용지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다음 동거로 인한 혜택지각에 응답자 가족특성, 부양의식, 형제자매의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이 변수들은 도시지역 응답자 부양혜택의 33%, 농촌지역 응답자 부양혜택의 29%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시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제자매의 지원이 응답자들의 부양혜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양행동을 나누어 할 수 있는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도움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자로서의 역할이 공평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들이 동거로 인한 혜택을 더 높게 지각했다.

동거로 인한 혜택지각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는 취업주부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기간이 길수록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는 시부모 양친과 동거하는 경우 혜택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비용과 혜택지각에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은 일관되게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로써 응답자들이 시부모 부양에 대해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시부모와의 동거를 비용으로 지각하는지, 혜택이라고 느끼는지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 응답자들은 자신이

〈표 4〉 동거로 인한 혜택-비용지각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용		혜택	
	지역	도시	농촌	도시	농촌
		b (β)	b (β)	b (β)	b (β)
시부모 배우자 유무(유=1)		.27( .19)**	.22( .14)**	.18( .02)	.88( .12)**
시부모의 건강		.01( .02)	-.06(-.08)	-.12(-.03)	.26( .08)
시부모의 경제적 형편		-.04(-.05)	-.05(-.05)	.88( .20)***	.69( .16)***
부양자 연령		-.00(-.03)	-.01(-.04)	-.13(-.17)**	-.05(-.07)
부양자 학력		.04( .08)	.09( .14)**	.20( .06)	-.01(-.00)
부양자 취업여부(취업=1)		-.21(-.16)**	-.04(-.02)	1.43( .18)***	.43( .06)
가구 소득		-.01(-.07)	-.03(-.09)	-.16(-.10)	-.21(-.01)
동거기간		.00( .04)	.00( .04)	.12( .19)**	.06( .11)
며느리순위(만(외)며느리=1)		.05( .04)	.02( .01)	.03( .00)	-.19(-.03)
부양의식		-.28(-.34)***	-.23(-.24)***	.75( .16)**	.54( .12)**
형제자매의 지원		-.17(-.21)***	-.38(-.40)***	1.58( .35)***	1.59( .37)***
상수		4.51	5.07	5.73	4.19
R <sup>2</sup>		.24***	.31***	.33***	.29***

\* p<.05 \*\*p<.01 \*\*\*p<.001

취업상태인 경우 동거로 인한 비용은 더 적게, 동거로 인한 혜택은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자의 취업이 비용이나 혜택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촌지역 응답자와 대조적이다. 이는 근래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로 인한 것으로 특히 도시에서 사는 응답자인 경우 시부모와 동거가 며느리의 취업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며느리 취업을 유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며느리의 취업은 시부모, 특히 시모로부터 가사원조를 받을 수 있고, 며느리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같은 공간에서 심리적 충돌을 겪을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혜택을 더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이 연구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과 비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밝힘과 동시에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과 비용 지각이,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도시와 농촌 3세대 가족의 세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부모 부양이 성인자녀에게 부정적인 차원만을 갖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차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부분의 부양연구들이 동거부양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그로 인해 치르게 되는 대가나 비용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논의해왔다는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사회변화의 속도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에 상이하게 적응해온 도시와 농촌 3세대 가족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와 농촌간 노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비용과 혜택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가장 혜택 적이라고 생각하는 항목과 가장 비용 적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의 서열에 있어 도시와 농촌응답자간 차이가 없었으나 각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는 과반수 이상의 문항에서 유의 차를 보일 만큼 도시와 농촌응답자간에 혜택과 비용에 대한 지각이 달랐다. 그 차이는 일관되게 농촌의 응답자들이 도시의 응답자에 비해 비용은 더 낮게, 혜택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농촌가족은 도시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또 도시응답자에 비해 저학력, 저소득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농촌 성인자녀들의 부양의식이 도시 성인자녀들보다 높았다. 즉, 농촌의 동거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하여 자녀로서 마땅히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입장을 더 지지하였다.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하여서도 도시의 동거자녀들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는 점 역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 부양자들이 도시지역 부양자들에 비하여 부양의식이 더 높고 형제자매의 지원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은 동거로 인한 혜택과 비용지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거로 인한 혜택과 비용지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도시 농촌 모두 부양자의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이정화, 1999; 이정화 한경혜, 1999, 2000)에서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의 지원은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매개변수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그 영향력이 논의되어왔다. 농촌가족이 보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노인부양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일관되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동거 시부모의 배우자 유무와 경제력, 그리고 동거며느리의 취업여부가 동거로 인한 비용, 혜택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영향력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부모의 배우자 유무는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비용에 영향을 미쳐 시부모 두분과 동거하는 경우 더 비용적이

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시부모 두 분과 함께 동거하는 것은 며느리에게 더 많은 가사부담과 관계적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는 본 조사대상자들이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인식하는 말며느리나 외며느리와 동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점에도 기인한다. 그런데 시부모 두분과의 동거는 농촌응답자에게 혜택지각에도 영향을 미쳐 농촌응답자는 시부모 두분과 동거하는 경우 비용이 높아지지만, 혜택 또한 높게 지각하는 일견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시부모 두분과의 동거는 도시 성인 자녀에게는 비용으로만 지각되지만 농촌성인자녀에게는 비용임과 동시에 혜택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농촌응답자는 도시응답자에 비해 부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도시지역 응답자의 동거로 인한 혜택-비용 지각에는 응답자의 취업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취업한 도시 응답자들은 전업주부보다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비용은 낮게, 혜택은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의 동거동기와 연결된 것으로 응답자가 경제적이거나 도구적인 이유에서 동거한 경우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보다 혜택지각이 더 높고(윤순덕·한경혜, 1994), 며느리의 취업은 동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강하여 며느리가 취업상태일수록 본인이 받은 혜택을 더 지각한다(이숙현·손승영, 1992)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도시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낮고 동거기간이 길며 취업한 응답자인 경우 시부모와의 동거를 보다 혜택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취업으로 인해 결혼 후 일찍부터 시부모와의 동거를 한 도시 응답자가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보다 많은 혜택을 지각한다는 의미가 된다. 농촌의 응답자인 경우, 부양에 대하여 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에 며느리의 취업이 시부모의 도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반면, 도시 응답자의 경우 며느리의 취업은 시부모와의 호혜적 관계를 유도하고 이것이 동거로 인한 혜택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의 3세대 가족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호혜성 유지가 긍정적인 가족관계에 보다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와 동거하는 도시와 농촌의 성인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가장 비용이라고 지각하는 부분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으로, '내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남편이나 아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에도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는, 그리고 손님접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가장 혜택을 누린다고 지각하는 부분은 도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시부모와의 동거는 심리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됨과 동시에 혜택이라고 지각되는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비용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 비용이나 혜택 지각이 3점 정도(범위1-5)의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양자들이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며느리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평균연령이 38세라는 것은 시부모의 많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상태도 양호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시부모의 특성이 혜택과 비용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시부모의 경제력은 동거로 인한 혜택지각에서 부양자 특성과 피부양자 특성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동거로 인한 비용-혜택지각에서 시부모와의 동거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들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부모의 경제력이 좋을수록 보다 혜택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양자의 비용지각에 있어서도 시부모의 경제력은 간접적인 경로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불 때(이정화, 1999), 3세대 동거가족에서 시부모의 경제력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부양자의 동거로 인한 혜택 지각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노년기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도시지역에서 딸과 동거하는 경우, 보다 혜택적이라고 지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농촌 3세대 가족의 경우 딸과의 동거는 극히 드물다는 점과 이 연구결과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자녀가 며느리로 한정되었을 때 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동거로 인한 비용과 혜택의 문항 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동거로 인한 혜택을 몇 개의 문항으로만 측정하여 좀더 구체적인 혜택과악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동거로 인한 혜택이 보다 정교하게 측정됨으로써 3세대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가 부양부담과 부양혜택을 지각하는데 도시농촌의 차이가 있다는 점, 즉 농촌지역 응답자가 부양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차이를 보임으로써 도시와 농촌 3세대 가족의 세대관계가 상이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즉 도시와 농촌 동거가족의 역동성이나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두었던 동거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거 혜택지각에 유의미한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3세대 가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왔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 ■ 참고문헌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송애(1990).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연구, -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 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1), 74-90.

박혜인, 신기영(2001).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35-155.

배희분, 옥선화(1993). 취업주부의 부양자역할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34-148.

서병숙, 이신숙(1991). 농촌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 의식과 부양 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서병숙, 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 교류연구-아들동거노인과 딸 동거 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성미애(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 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부담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1999).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학술진흥재단 인문과학중점연구 보고서

윤순덕, 한경혜(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회, 14(2), 105-120.

이신숙, 서병숙(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이숙현, 손승영(1992).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 만족도. 한국사회학 제 26집, 145-164.

이정화(1999). 부양의식과 형제자매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 논문.
- 이정화, 한경혜(1999). 형제자매의 지원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3), 1-19.
- \_\_\_\_\_ (2000). 농촌지역 며느리의 부양의식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69-182.
- 전길량(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 기대감.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 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한경혜(1996).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culture of ag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1), 41-57.
- 한은주(1993).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dy, E. M., Hoffman, C., Kleban, M. H. & Schoonover, C. B. (1989). Caregiving daughters and their local siblings: Perceptions strains, and interactions. *The Gerontologist*, 29, 529-538.
- Cicarelli, V. G. (1992). Siblings as caregivers in middle and old age. In J. W. Dwyer, & R. T. Coward(Eds),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105-119. Newbury Park, CA : Sage.
- Fisher, L. R. (1983). Mother and Mother-in -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87-202.
- Glick, P. C. & Lin. S. L. (1986) More Young Adult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 Who are th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05-112.
- Lerner, M., Somers, D. G., Chiriboga, D. & Tierney, M. (1991) Adult Children as caregivers: Egocentric biases in judgements of sibling contributions, *The Gerontologist*, 31, 746-755.
- Morgan, S. P. & Hirosima, K. (1983). The persistence of extended family residence in Japan: anachronism or alterative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260-281.
- Novak, M. & Guest, C. (1989).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 798-803.
- Shin, H. Y. (1989). The influence of Age stratification on motives for and outcomes of caregiving in mothers and Daughters, PH.D.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Strawbridge, W. J. & Wallhagan, M. I. (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6), 770-777.
- Stull, D. E., Kosloski, K. & Kercher, K. (1994). Caregiver Burden and Generic Well-being: Opposite Sides of the Same Coin? *The Gerontologist*, Vol 34, No.1